

해외동포 자금, 국내 수혈 유도를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기의 침체 여파로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욱 지독한 어려

움에 직면하고 있다. 굳이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급격한 수출 감소
와 길게 늘어선 구직인의 줄이 우리 경
제의 단면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
런 와중에 해외 동포의 국내 자산 반입
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주목을 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미 2008년의 경우 12월을 제외하고
도 재외동포 등이 국내 반입한 금액이
14억3000만 달러로 2007년 동기의 2억
6000만 달러와 비교할 때 5.5배로 급증
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현상을 두고 환차익을 얻

기 위한 일시적 자금 유입으로 단순히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
만 한편으론 이와 같은 외화 유입도 활
용하기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이나 부
동산시장에 보다 긍정적 역할이나 기
능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해외 동포의 자금이 부동산시장
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적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더 많은 해외
자금이 흘러들어 동맥경화와 다름없
는 국내 부동산시장에 생기를 불어넣
는 수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
가. 이렇게 국내에 반입된 자금이 국내
의 경제적 위기 상황 해소에 도움이 되
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발 앞
선 정책적 방안의 모색을 권하고 싶다.

위기의 국내 경제 상황에서 해외
동포들의 유입 자금은 크지 않더라도
활용하기 나름으로 정책 당국의
부담도 줄이면서 시장에서의 거래심
리 회복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력 회복 촉매제
가 될 수 있다. 국난과도 같은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에 해외 동포들이 십
시일반으로 동참한다는 긍정적 의미
가 아니겠는가. 이런 조그마한 불씨
가 계기가 돼 '제2의 바이 코리아'의
뜨거운 열기를 만들고 국민들 가슴
속에 희망을 심어준다면, 경기회복
이 세계 속의 코리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리라는 외침이 정녕 흰소리만
은 아닐 것이다.